

2015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엄

정신탈출력 in 심리학

—
2015년 2월 13일 (금)
09:30~17:30

—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초대의 글**

우리사회의 폭력실태는 국민 개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수위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병영폭력, 직장폭력... 폭력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우울한 자화상의 한 단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주로 사후 대처이거나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한 결과물이어서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폭력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심리적 기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대(對)국민 학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심리학자들 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전문가, 그리고 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융합적 탈폭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한국심리학회장 **이규미**

◎ **프로그램**

1부. 심리학의 프리즘을 통해 본 폭력

。 사 회 : 주영아 교수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시간	내용	발표자	
9:30-10:00	개회사 및 축사	이규미 회장	한국심리학회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0:00-12:00	폭력행동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폭력행동과 뇌	김영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폭력행동과 인지·정서적 문제	James Blair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2:00-13:30	중 식		

2부. 탈폭력을 위한 해법

。 사 회 : 최기홍 교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폭력행동의 조절과 관리	이영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과학교실
14:00-14:30	탈폭력을 위한 상담적 접근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4:30-14:50	휴 식		
14:50-16:30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심리학자들의 역할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Stephen D. Hart	Simon Fraser University
16:30-17:30	종합토론: 국민안전을 위한 다각적 모색		
17:30	폐 회		

◎ 발표자



James Blair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Chief, Unit on Affective Cognitive Neuroscience

James Blair is Chief of the Unit on Affective Cognitive Neuroscience at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Dr. Blair received a doctoral degree in Psychology from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1993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John Morton. Following graduation he was awarded a Wellcome Trust Mental Health Research Fellowship that he held at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Cognitive Development Unit for three years.

Subsequently, he moved to the Institute of Cognitive Neurosci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re, with Uta Frith, he helped form and co-lead the Developmental Disorders group, and was ultimately appointed Senior Lecturer. He Joined the NIMH Intramural Research Program in 2002.



Stephen D. Hart

Simon Fraser University
Professor , Department of Psychology

Dr. Hart's primary area of expertise is forensic psychology. His work focuses on clinical-forensic assessment in criminal and civil settings, particularly of violence risk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He started teaching at Simon Fraser University in 1990 and was appointed a regular faculty member in 1994. He has also been a Visiting Professor at the Faculty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ergen, since 2000.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University of Iowa에서 학교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연구관심 분야는 아동, 청소년 우울, 폭력, 자살, 위기개입과 위기관리, 발달장애 분야이다. 연구발표논문으로는 「또래괴롭힘: 주변인 개인과 사회적 맥락 변호의 필요성」,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심리적 경험보고(debriefing)의 문제점들과 올바른 적용을 위한 제언」 등이 있다.



김영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생리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 사건 관련 전위를 이용하여 사이코패스와 거짓말 탐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소스기억인출 동안 피질 네트워크 다이내믹」, 「반복점화효과와 관련된 좌반구 하측 전두회의 활동성」, 「p300-기반 유죄지식검사에서 거짓반응 동안 전두두정 활동성」 등이 있다.



이영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과학교실

연세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과학교실에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폭력가해자의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발표논문으로는 「Effects of high and low stress on proinflammatory and antiinflammatory cytokines」, 「Relationship between neural activity and immunity in patients with 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 등이 있다.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상담관계, 상담자발달, 상담과정 및 효과, 다문화상담, 애착, 외상 후 성장 분야이다. 연구발표논문으로는 「Face consciousness among South Korean women: A culture-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상담자 즉시성의 유형, 사용 이유 및 내담자의 반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등이 있다.

◎ 참가 방법 안내

1. 사전등록 방법
: 접수 및 등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 2015년 1월 중 공지 예정
2. 사전등록 기간
: 2015년 1월 중 예정 (세부 일정 추후 공지)
3. 참가등록비 : 회원 10,000원. 비회원 20,000원 예정
4. 수련 인정 시간 정보
: 임상 분과 임상심리전문가/ 상담 분과 상담심리사1,2급/ 건강 분과 건강심리전문가/ 사회및성격 분과 범죄심리사 수련시간 인정됩니다. (세부 사항 추후 공지)

◎ 장소 안내

서울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02-6050-3114)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이용 - 삼성본관방향 5분 거리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이용 - YTN 방향 5분 거리